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총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 헌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동구권복음화대회 열린다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체코 모라비아에서

18세기 초 진젠돌프에 의해 주 도되었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 운동을 재현기 위한 동구권과 복음화대회가 오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아 모라비아 칼비나시에서 열리게 된다. 이 대회에는 소련 연방국에서 60명의 교회 지도자를 비롯하여 주최 국가인 체코에서 80명, 그리고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 각각 40명, 총 3백여명의 대규모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서방 여러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대거 참가하여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회를 이끌어 동구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지난해 10월 우리 교회 김치(KIMCHI) 세미나에 참석했던 체코의 루터파 교회 목사인 스타니스타브 피에타크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동구권과 교회에 복음 사역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지식을 전달하여 우리 백성들을 복음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 아침 기도회로 시작하여 성경 연구, 주제 강연, 국가별 전략 토의가 있게 되고 오후에는 30개의 워크샵을 열어 복음화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케 된다. 저녁

에는 7개국 대표들이 지난날과 현재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간증하게 되며, 오스트라바와 트렌친 두 도시의 운동장을 빌려 옥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AD2000년운동(총재 : 토마스 왕 목사) 본부가 지원하는 이번 대회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김치(KIMCHI) 세미나에 참여했던 목회자들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목사의 말씀 공급과 더불어 기도과 물질로 지원케 되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밀알선교단에 성경, 찬송가 전달



우리 교회는 20일 제11회 장애인 날을 맞이하여 한국밀알선교단에 성경과 찬송가 백편씩을 기증하였다. 19일 오전에 전달된 이 성경과 찬송가는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의 선물이 될 것이다.

구리하라 선교사 사랑의 집 건축헌금

우리 교회의 일본 협동선교사로서 지난 14일 과송장을 받은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가 다음 날 임지로 떠나면서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였다.

초등 4부 오늘 노방전도

초등 4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강남역 일대로 노방전도를 나간다. 이번 행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P 군에게,

뇌성마비라는 무거운 절고를 짊어진 채, 칠전팔기의 인간승리를 보여준 자네의 거룩한 믿음에 나는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하고 싶다. 《천지창조》라는 시집을 출간하겠다고 자네가 내게 추천서를 부탁했을 때 나는 그 원고를 전해주시던 C 장로님을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 그러나 자네의 시를 읽는 동안 나는 내 마음에 박동을 느꼈고 잠시나마 자네에 대한 내 단견을 부끄러워 했다네. 비록 육신은 후패해졌지만, 자네의 영혼은 맑고 깨끗해서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늘은 왠지 자네가 더욱 귀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 중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 내 마음이 기쁘기 그지없다네.

사랑하는 P 군,

이 나라의 4백만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니 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디 힘차게 살아 주게. 자네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네. 우리 교회의 사랑부, 에바다부, 장애아동조기교육원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듯, 자네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네.

4. 21
이 중 윤 목사

총헌올림픽 유니폼 제작 후원자 기다려

제3차 총헌올림픽의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총헌올림픽 집행위원회는 질서와 화합 속에서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헌유니폼”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팀별 고유 색깔로 구별시킨 유니폼은 한 벌당 제작비가

2천여원이며, 총제작비는 천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행위원회측은 유니폼 제작에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것을 바라며, 신청은 5월 12일까지 사무국 행정과에서 받는다고 한다.

전도위원회 오늘 저녁 헌신예배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오늘 저녁 7시에 헌신예배를 드린다. 136개의 전도회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복음 전과 사역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 이 헌신예배에는 홍정길 목사(남서울교회)가 설교하고, 남전전도회장들이 특별 찬양을 할 예정이다.

청년1부 매월 연구수업 실시

청년 1부(부장 박순준 장로, 지도 김찬곤 목사)는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교육 평가를 통해서 회원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한 차례씩 연구수업을 하고 있다.

4월달 연구수업은 지난 14일, 신정숙 권사(3반) 담당으로 실시되었다.

주차 질서에서도 모범을 보이자 위반시에는 스티커 부착기로

차량부는 한정된 주차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안내스티커를 제작하여 교인들에게 배부하기로 했다.

차량부는 성도들이 교통 정리 안내를 잘 따라주고 주차장에서 질서를 잘 지켜주어 감사하다면서, 간혹가다가 발견하게 되는 잘못 주차된 차량에 주차 안내스

티커를 꽂아두어 주차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주차시에는 반드시 주차선 안에 하도록 하고, 차 앞쪽을 건물 벽을 향하도록 주의할 것과 통로에 주차할 경우에는 사이드를 풀고 기어는 중립으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세례, 학습, 입교, 개종, 유아세례 희망자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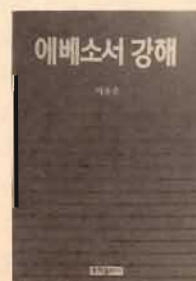
우리 교회는 4월 24일 성례식 주 동안 실시되는 기초교리반을 수강해야 한다. 그리고 입교자 중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2년 이상 출석한 성도나, 유아세례 및 학습 희망자는 셋째주 지난 월요일에 실시되는 1일 단기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세례, 개종, 입교 희망자는 5

스테반회 매주 월요일 특별기도회 가져

스테반회(회장 김여순 집사)는 이 하고 정기기도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특히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부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에베소서 강해



이종윤 위임목사의 《에베소서 강해》가 출간되었다.

본 서는 제 1회 목회자세미나 5학기 때, 수강 교역자들에게 강해설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펴낸 것으로, 교회의 성격과 목적을 담고 있다.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빛의아들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요12:35, 36)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종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주간을 앞에 놓고 주님께서 최후로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들려야 하리라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빛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다.

1. 빛의 의미

첫째로,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줍니다. 검고 흰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가려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빛은 모든 문제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들은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들의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빛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믿음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빛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그들은 가장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자들임을 예수님께서서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서는 행함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빛을 믿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손의 안팎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2:26).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항상 경고장을 받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빛 안에서 걸어가기를 힘쓰되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예수님의 약속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고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참된 빛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요 12:35, 36)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태양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쪽 하늘로 사라져가는 석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서는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로되 곧 이어 어두움이 엄습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여기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을 보게 되면, 빛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빛”을 언급하셨을 때에는 막연한 의미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가라 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9:5),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요12:46, 47)

예수님께서서는 그밖에도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4절 이하에서는 생명으로 묘사하셨습니

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고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이란 죄, 무지, 악한 것, 파괴, 어두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또한 어두움이란 파괴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물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빛이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대해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충분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만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서는 “참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이십니다.

2. 행함과 믿음

본문 35절과 36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하였던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주시려고 또 다시 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말씀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것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닌다는 것은 빛 안에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믿음이 있을 후에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빛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빛 안에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빛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신 예수님

우리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까. 믿음과 행동 사이에 넓디 넓은 간격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대접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무서운 경고

본문 35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구약성경의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하면, 네게 자손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명령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쉼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바로 이와 같은 은혜스러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들도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빛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빛이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빛의 속성을 갖게 되고 그분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클로즈업

주님을 사랑하기에

- 대학부 성기운 성도 -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현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있는 성기운 성도.

현재 과학기술대학교 생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는 매주 주일 예배와 찬양 연습을 마친 후 학교가 위치한 대전으로 내려가 생활하다가 금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토요일에 있는 대학부 집회에 참석한다.

보통 3, 4시간 걸리는 서울에서 대전간의 거리를 매주 왕복하려면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피곤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에서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니 많은 봉사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라고 수줍은 미소를 띠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사실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며 얼마든지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자라온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한 이렇게 먼 길을 오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일주일 동안의 나태한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진 심신을 깨울 수도 있어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서울행 열차를 탄다고 한다.

이렇게 성기운 성도가 매주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려는 성기운 성도 자신의 마음과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던 중 89년 10월에 온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지금까지 착실히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는 터라 별 어려움 없이 신앙 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다고 한다.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외로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품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께선 한번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다.

앞으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성기운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일생에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본 제5회 교구찬양대회

지난 4월 13일 개최되었던 제5회 교구찬양대회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화합과 친교의 한마당이었던 이번 교구찬양대회는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온 교인이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는 분위기였다.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거리상으로

교회에서 모이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한 교구는 교구 내에 있는 교회를 빌려 연습을 하는 적극성도 가졌으며, 남자 성도들의 참여율도 향상되었다. 또한 2천여명의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구찬양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범적인 교회의 성도들답게 질서 정연한 자세도 보여주었다.



1. 개회예배
2. 찬양을 통해 전교인이 하나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다.
3. 틈틈히 모여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4. 각 찬양대 지휘자가 심사를 맡았다.
5. 11교구와 13교구가 합창과 중창에서 각각 1등을 하였으나, 경쟁한다기보다는 일치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 깊은 대회였다.



세기 등

그릇된 재림론에 현혹되지 말자



김 차 생 장로
(제2 교육위원장)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원한 소망인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지금 한국 교계에는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이 기세를 부리고 있다. 서점가에서는 종말론 관계 서적들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으며, 신문 지상에는 계시록 강해, 말세론 강해, 재림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그리고 지하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의례히 광신자들이 목청을 높여 1992년 10월에는 지구 최후의 종말이 온다고 외치면

서 유인물을 돌리며 선전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가(마 24:42~44). 재림의 날짜를 계시받았다는 환상을 보았다는 인간적 측정 방법으로 예고하여 교인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는 직장인들이 직장을 쫓겨치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신학을 포기하는가 하면, 부녀자들이 가출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대체로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사회적 혼란, 경제적 파탄, 전쟁 후의 불안 현상으로부터의 현실 도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은 한결같이 민간신앙에 뿌리 박고 있는 사마니즘적 종말 신앙이 예수의 재림 날짜를 그럴듯하게 풀이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고달픈 역사적 위기를 당할 때마다 현실적 삶을 그대로 긍정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한번 뒤집혀져서 천지 개

벽이 되어 새 세상이 와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걸프 전쟁은 이러한 이단자들의 이용거리가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성실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지체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재림의 연속인 것이다.

한편,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학적 사고 방식으로 배도하며 부인하고 경시하는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신비주의적 재림사상도 절대 배격해야 할 것이다.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 재림 날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지체인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재림의 연속인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주님의 재림은 임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삶의 목표로 삼고 오늘의 삶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충성되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선교지 소식 - 애급

교육, 선교, 구제를

지향하는 선교 사역

이준교 선교사는 전체 인구의 82.4퍼센트가 회교도인 애급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일에 여념이 없다.

현지인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선교사는 카프르 엘 알르와 교회, 칼리움 미트나마 교회 등 현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로 인하여 애급에서는 옥외 집회나 옥외 전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를 중심으로 현지인 교회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 특히 빈민촌과 농촌 교회도 지원하고 있다.

이 선교사는 애급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강의함으로써 교회 성장의 원리와 모델들을 제시하고, 신학생들에게 소명감을 고취시키는 등 현지인 목회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빈민들을 위한 성경공부, 진료, 직업교육과 애급복음주의 교단 산하의 사회사업 기구와 협력하여 고아원 및 맹아원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제4회 부부교양대학

우리 교회 부설 충현부부교양대학은 금년에도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충현부부교양강좌를 개설한다.

- 대 상 : 부부 동반(타교회 성도도 환영)
- 장 소 : 충현교회 갈릴리움
- 등 록 비 : 5천원(간식 제공)
- 접수기간 : 4월 7일~4월 23일
- 접 수 처 : 사무국 행정과(소석관 102호)

일 자	주 제	강 사
4. 23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가정	이종운 목사(충현교회)
4. 30	그리스도인 가정의 스트레스	최영민 교수(서울 백병원)
5. 7	그리스도인과 성	이춘실 교수(장신대학)
5. 14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	이수영 교수(장신대학)

목회자세미나 참가소감문

건전한 교회로의 갱신과 성장 주도

손 명 철 목사(태백중앙교회 담임)

하늘 밑 첫 마을이라 아직 눈이 쌓여 있는 태백산 기슭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여 석탄으로 검어져 있는 강원도 오지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개척목회를 하던 중 언젠가 기독교신문을 읽다가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세미나"라는 광고를 보는 순간, 나의 눈이 환히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광고 내용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2년 6학기가 한 과정인 이 세미나는 매 학기가 모두 10주에 걸쳐 진행되고, 등록금은 만원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5시 30분에 끝나는 두 강좌였습니다. 강사진은 신학대학의 교수님과 목사님들과 교단별로 골고루 초대된 좋은 분들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상은 교파를 초월한 전국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89년 1월인가 생각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가 소강당(주:갈릴리움)에서 하려고 했던 주최측의 의도보다 훨씬 초과하여 대예배당(주:본당)으로 옮긴다고 하였습니다.

6·25 동란 이후, 급성장한 한국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신문, 잡지, TV를 통

해 심심치 않게 기독교 전반에 걸쳐 부끄러운 일들이 날이 갈수록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 교회로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의 상황에서 질서 있는 건전한 교회로의 성장과 갱신을 목표로 하는 본 세미나는 매우 뜻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에 가 보면, 많은 성도가 있는데, 거리에서는 성도를 보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하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현실은 교회 갱신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고, 교회 갱신은 목회자 자질 개혁 향상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나는 본 세미나에 대해 감격의 감사를 합니다. 강의를 들을수록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이 중윤 목사의 "성경적 교회 성장의 원리" 강의는 교회가 바로 정립되고 성장하는 비결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내어 쉽고도 알찬 내용으로서, 저로 하여금 자각과 도전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제2교시는 각 교단에

서 고루고루 좋은 강사님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로 강의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25일에는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라는 주제로 6개 신학대학 책임자들을 모시고 발제 응답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너무도 좋은 내용이었기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매주 주일 저녁예배 인도 후, 곧바로 밤열차로 상경하여 오전에 용무 마치고 오후에 강의를 들을 때도 있지만, 대개는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고 새벽 4시 50분발 통일호 열차를 문곡역에서 타고 5시간 반 또는 6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를 달려와 본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장거리 여행으로 피로가 겹치기도 하지만 즐겁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으나,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에 매료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끝으로 충현교회 한국교회성장연구원의 주관으로 전국 교역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교회 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세미나"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을 개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인류에게는 축복, 우리들에게는 보람을 주는 센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차 충현올림픽 각 팀 임원 및 경기운영 개요 발표

◆ 각 팀 임원

팀	임원	소망(청색)	사랑(홍색)	충성(녹색)
교구	4, 8, 9, 16	2, 6, 10, 14	3, 7, 11, 15, 17	1, 5, 12, 13, 18
단장	최상규	윤명식	김은호	오태희
부단장	김천채 최무길 송기홍	마성락 김원선 이병학	이훈 문홍구 이종국	김광신 정하우 이영세
총감독	윤성철	최대원	손경수	이창호

◆ 경기종목 및 시간표

시 간	경 기 종 목	소 요 시간(분)	참 가 선 수	경 기 진 행
08:30	팀별 집합 완료		교 구 별	
08:30 ~ 09:00	인원점검, 입장식 준비	30	팀 별	
09:00 ~ 09:30	선수단 입장	30	팀 별	음악 활용
09:30 ~ 10:00	개 회 식	30	전 교 인	개회예배, 개회선언, 선서, 선수단회장
10:00 ~ 10:20	천국열차릴레이	20	• 중·고등부 • 청년부·대학부 • 장년부 (남·여 각각 5명)	• 남·여별로 진행 • 파트별로 경기
10:20 ~ 11:20	배 구	60	• 남자: 7명 • 여자: 2명 (남·여 혼성 9인제)	• 예선: 21점(1세트) • 결선: 21점(1세트)
11:20 ~ 11:40	지경넓히기	20	• 사랑부(전체) • 각팀 소망부 남: 10명, 여: 10명	• 남·여 2인 1조
11:40 ~ 12:00	무지개 따오기	20	• 남자: 70명 • 여자: 70명	• 남·여 별로 진행 • 예선: 1회 • 결선: 1회

시 간	경 기 종 목	소 요 시간(분)	참 가 선 수	경 기 진 행
12:00 ~ 1:00	중 식 농 구	60 (40)	• 고등부·대학부 • 청년 1, 2, 3부	• 전·후반: 15분씩 • 휴식 10분
1:00 ~ 1:20	4인2각릴레이	20	• 남자: 12명 • 여자: 12명	남·여 별로 진행
1:20 ~ 2:10	피 구 족 구	50	• 여자: 30명 • 남자: 5명	• 예선: 10분 • 결선: 10분 • 예선: 15점 • 결선: 15점
2:10 ~ 2:30	성전 돌 나르기	20	• 남자: 10명 • 여자: 10명 • 각팀 피켓걸 • 각팀 단장	• 남·여 별도 진행
2:30 ~ 2:50	응원 및 경연 대회	20	각팀 응원 단장 전체 참가	• 팀별 응원전
2:50 ~ 3:10	육상단거리	20	• 초등 1부~6부 • 남자: 6명 • 여자: 6명	• 남·여 별로 진행 • 각 부별 경기
3:10 ~ 3:30	경보 릴레이	20	• 여교역자: 4명 • 권 사: 4명 • 선수(여): 4명	• 직분별로 진행
3:30 ~ 4:00	장애물경기	30	• 목사(2), 장로(2) • 남자대표: 4명 • 여자대표: 4명	• 파트별로 진행
4:00 ~ 4:20	구약과 신약	20	• 전교인 회망자	
4:20 ~ 4:30	깨끗한 마음	10	• 초등부 전체	• 팀별 진행
4:30 ~ 5:00	폐 회 식	30	• 전 교 인	• 성적 발표 및 시상 • 폐회예배 • 상품전달 및 정리